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망 가동

전주시,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안부 확인 강화·무더위쉼터 운영 등 보호 대책 집중 시행

전주시가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주시의 돌봄대상 노인은 1만 536명으로, 전체 노인인구(12만 5456명)의 8.4%에 달한다. 이번 폭염 보호 대책은 저소득·독거 노인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활용한 전화·방문 안부 확인 강화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망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지역 자생단체와 통·반장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의 세 축을 중심으로 취약 노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생활지원사(404명)가 독거노인 약 5900명을 대상으로 매일 안전을 확인하고,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과 폭염 행동 요령을 직접 전달한다. 또,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도 즉시 가동하며, 무더위가 집중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야외 활동 자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 운영도 대폭 내실화한다. 시는 경로당 369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폭염 대책 기간인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쉼터 내 적정 실내 온도는 26~28℃로 유지되며, 냉방기기 작동 상태와 안전 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폭염 발생 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비상구급품과 응급

조치 요령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무더위쉼터 위치와 이용 방법은 통장회의·자생단체·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 홍보해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니어클럽 등 19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실외 활동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35개 동 주민센터의 노인공익활동 참여자들은 혹서기(6월~9월) 동안 기존보다 1시간 앞당긴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활동을 진행한다. 시는 동 주민센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혹서기 물품을 지급하는 등 야외 활동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5개 무료경로식당과 7개 도시락배달기관에 대해서는 폭염 행동요령 홍보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식품 관리를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35개 동, 노인맞춤돌봄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협력해 민간 후원을 적극 발굴하고, 취약 노인 지원과 연계를 확대한다.

시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폭염대책기간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일일 안부 확인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등 선제적이고 촘촘한 어르신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현욱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폭염은 냉방 환경이 취약한 독거노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돌봄 인력과 무더위쉼터, 응급 안전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어르신 한 분도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촘촘한 보호망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책 읽는 기쁨' 릴레이 독서운동

전주시, '올해의 책' 연계 독서 릴레이·100일 필사 등 추진

책의 도시 전주시가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과 함께 '2026 전주 올해의 책'을 함께 읽는 릴레이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책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2026 전주 올해의 책' 연계사업으로 '독서 릴레이'와 '100일 필사' 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26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전주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읽고 PASS! 쓰고 PASS! 독서릴레이'를 운영한다.

이번 독서릴레이에는 사전 모집을 거쳐 선정된 초등학교(4-6학년) 3개교와 중·고등학교 3개교 등 총 6개교 68학급, 1739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참가 학교의 학생들은 올해의 책을 릴레이 형식으로 함께 읽고, 학급별 톨링 페이퍼에 등장인물에게 전하는 한마디나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며 감상을 나누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민 50명이 참여하는 '100일 필사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릴레이 방식이 아닌 참가자 개개인 100일 동안 혼자만의 깊이 있는 독서를 즐기는 1인 도전 형식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어린이(그림) 5명 △어린이(글) 5명 △청소년 15명 △일반 25명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참가자들은 오는 8월 7일까지 자유로운 형식과 분량으로 책 속 감동적인 문구와 장면을 기록하며 일상 속 독서의 가치를 더하게 된다.

이러한 '전주 올해의 책' 연계사업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면 '제9회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해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올해의 책 부문별 선정 작가를 초청하는 '작가와 만남' 강연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 2026 전주 올해의 책은 △어린이(그림) 부문: 황금 고래니(김민우 글·그림, 노란상상) △어린이(글) 부문: 거의 다 왔어!(윤일호 글·정지운 그림, 내일 울어는책) △청소년 부문: 눈자의 렌(최상희 저, 참비) △일반 부문: 노 피플 존(정이현 저, 문학동네) 등 총 4권이 선정됐다.

이영섭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학교에서 다 함께 달리는 독서릴레이와 일상에서 스스로 사유를 넓혀가는 100일 필사가 시민들에게 '책 읽는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시민들이 일상에서 문장이 주는 다채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 본격화

전주시, 도·진흥원·시군·대학·기업 협업체계 구축... 50+ 어르학교 등 지역특화 평생학습 추진

전주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도내 평생학습도시, 지역대학 및 기업과 손잡고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영성회의실에서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이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순창군이 참여했다.

협약기관들은 전북형 평생학습집중진



전주시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영성회의실에서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기관 간 사업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으며, 공정한 학습 기회 제공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시는 이날 지역 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호원대학교 RISE사업단 △우석대학교 교양대 △유지대학교 교양대 △유지대학교 교양대 △유지대학교 교양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과 기업의 교육 자원, 전문 인력, 콘텐츠 역량을 연계해 전주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시와 협력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로컬 학습 시대'를 여는 동고동락(同高同樂) 학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50+어르학교 △50+인생학교 △지역교류사업 △스마트폰 활용교육 강사 보수교육 △매출페스티벌 부스 참여 등이다.

특히 전주대·우석대·호원대는 로컬플러스 사업 분야에서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고, (주)KT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 사업 운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역·진흥원·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형 평생학습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장년층을 비롯한 시민들이 삶의 전환기에 필요한 배우고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 평생교육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완산구 일원 신재생에너지 323개소 보급 지원

전주시가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보급키로 했다.

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으로 산업통상부의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8년 연속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공공·상업·주택시설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10억

76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참여업체와 협약체결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완산구 일원으로, △주택용 태양광 290개소(1134kw) △태양열 11개소(149.6㎡) △지열 22개소(385kw)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69MWh의 에너

지를 절감하고, 연간 474tce의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총사업비는 23억 원이 투입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 후 사례 판단하기 전 또는 사례 판단 이후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최소 20 가정을 대상으로 1가구 당 50만 원 이내로 신속 지원에 나서 가족기능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우선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전 긴급하게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검진비와 필수물품 등을 지원

하게 된다.

또한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자녀 양육 기술과 학대 예방 등에 대한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또, 가족간 유대 활동 및 감정공유 소통 프로그램을 지원해 가족기능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교육기관·아동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시민들이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아동학대 위험군 재발방지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